

대화는 언제나 유쾌하다. 직장불자회 '아저씨 거사', '아줌마 보살'들이 풀어놓는 대화. 일터 불심이 윤택해진다. 여기에 '젊음'까지 보태면 금상첨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젊은 직장인 불자가 없다. 직장불자회가 늙어가

'일터 불심' 들의 직장불자회 사랑

고 있는 셈이다. 40~50대가 주류인 직장불자회가 젊어지려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희망을 품고 있는 직장불자들. 지난 9월 29일, 3명의 '젊은 직장불자' 들을 만났다. 박진서, 원혜란, 김현진 불자. 이들의 불교사랑과 직장불자회에 대한 애정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였다.



◇ '젊은 직장인 불자들' 김현진(사진 왼쪽), 원혜란(가운데), 박진서 불자. 다소곳이 두손을 모은 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박재원 기자

“젊은층 눈높이 맞는 법회 필요해요”



#1. 나는 아 '70년대 생' = 박진서 불자(33·법명 진명·태릉). 입사 9년차, 직업은 기관사다. 철도청 성복승무소 법우회 총무를 맡은 그는 3년째다. 수행 전력은 순박하다. 고교 시절, 영어 단어 수학 문제를 외고 푸는 것보다 불교가 마냥 좋았다고 한다. 향내음이 좋아 집에서 살았고, 집이 편해 집처럼 지냈다. 달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서 기관사가 됐다는 박 불자. 쪽 들어간 보조개가 백만 불짜리다.

푸른 제복에 마음을 빼앗겨 93년 경찰에 투신했다는 원혜란 불자(32·경장·잠원동). 98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발령을 받고, 곧장 불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불교는 어머니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불교회 홍보부장이란 감투는 올 초부터 썼다. 첫 사업으로 사이버 서울청 홈페이지 동호회에 불교회 이야기 터를 마련. 특목 뛰는 '젊은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넉넉한 미소가 영락 없는 열성 누나다.

74년생. 올해로 스무 살 막자를 탄 김현진 불자(29·법명 법륜행·대치동)는 쟁쟁한 이력을 갖고 있다. 98년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2002년 사법고시 패스. 미모 또한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99년 서울 능인선원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불심이 깊어졌고, 본격적인 수행생활은 연수원 입학이후 34기 다라마 법우회에서 시작했다. 수줍음이 매력이다.

제각기 다른 직업과 이력들. 최소한 공통분모는 있다. 불교다. 부처님이 좋아 직장불자회 사람이 됐고, 동료들과도



반이 됐다. 공통점은 또 있다. 직장불자회에 소위 '297(20대 90년대 학번, 그리고 70년대 생을 일컫는 신조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는 점이다.

#2. '유쾌한 만남', 젊기에 통했다 = 처음 만난 여색학, 이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 수다에 가까운 대화가 술술 풀린다. 서로의 직업 세계에서 연봉, 근무여건에 이르기까지 이야기 거리가 넘쳐난다. 취적 맞는 호응에 이유를 물으니,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다. '우리 젊으니까요'. 공감증은 더해졌다. 이들에게 직장불자회의 매력은 무엇일까? 원혜란 불자의 설명은 이랬다.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찾을 뉘 수 있잖아요. 뒷불자처럼

말을 듣고 싶어서 기관사가 됐다는 박 불자. 쪽 들어간 보조개가 백만 불짜리다.

“부담없고 재미있어야 동참자 늘어나요”

문화 이벤트 자주 열어 분위기 바꿨으면...

'일'과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직장불자회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속내를 은근히 보여주는 불교. 정말 좋지 않나요?'(일동 웃음)

젊은 직장불자로서 고민도 깊었다. 이야기는 직장불자회 활성화로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직장불자회 수행패턴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박진서 불자의 말이다. '40~50대 위주의 직장불자회 수행



은 젊은 직장불자의 참여 폭을 좁히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법회문화가 필요해요."

김현진 불자도 말을 보탠다. "맞아요. 한 두 사람이 법우회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봐요. 다함께 참여하고, 진행되는 법우회를 만들어야 해요."

#3. 일터에 새로운 불교비밀 일킨다 = 다양한 대안이 쏟아졌다. 교리 학습 프로그램, 사찰 주변 공부, 불자회 내 취미 소모임 결성 등 '젊은 언어'를 직장불자회 수행 프로그램에 담아내는데 지혜가 모아졌다.

박 불자가 먼저 대안을 제시했다. "자발적인 참여는 일터 불심을 잘 일어내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앞으로 문화 개념의 이벤트를 열어 젊은 직장불자들이 기획, 홍보, 섭외, 진행 등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예요."

원 불자가 거든다. "법회에 빠지면 안 될 만큼 재밌는 법회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다려지는 법회, 부담 없는 법회가 젊은 직장 불자들의 눈높이에 맞을 테니까요."

김 불자도 의견을 내놓았다. 젊은 불자들은 자연스러운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수행 코드를 잘 맞춰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본인부터 수행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래야만 동료들에게 인격적인 감화를 줄 수 있고,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리불자회는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지부

불제자와 교사로 산다는 것은 부처님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불자교사들은 언제나 이 점을 잊지 않고 삽니다. 때문에 불자교사로서의 사명감은 남다른 수밖에 없습니다.

창립은 지난 98년 3월 합천 해인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지부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사실 지부 결성이전에도 정법교직원불자회, 연화교직원불자회 등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남지부의 탄생은 이 지역 5개 지회 구성에 기폭제가 됐고, 경남 지역 불자교사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밀양지회는 밀양불교발전연구회를 결성, 지역불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지회별 활동의 우리 지부는 정기적인 수련회를 열고 있습니다. 찾아가간 사람만 해도 양산 통도사, 하동 쌍계사, 밀양 표충사, 창원 성주사, 고성 육천사 등 전국 지방공공의 사찰에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와 연계해 방학 때엔 학생들과 함께 자연보호와 생태계 보존활동도 전개했습니다. 특히 정제된 학생회법회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

다. 지역적 거리 때문에 정기적

법회·자원봉사 외 자연·생태계 보호활동

회원 배가운동, 11월 9일 창원지회 창립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지부 불자교사 회원들이 지난 2002년 8월 하동 쌍계사에서 여름수련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선이 됐습니다. 우리 경남지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원·마산의 정법교 직원불자회, 통영·고성의 연화교 직원불자회, 진주·하동지회, 거창·합천지회, 김해·양산지회 등에서 수행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법교직원불자회는 1987년에 창립된 이후로 16년째 마산 정법사에서 정기법회를 빠짐없이 봉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들은 인근 학교의 학생회 지도교사를 맡으며, 청소년 포교에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연화교직원불자회는 고성 육천사 정연암에서 주지 승속 스님을 모시고 첫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밖에 거창지회는 창원 포교당에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인 합동법회를 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부 회원이 다함께 모이는 법회는 자주 못 열었지만, 지회별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카페를 백분 활용해 정보를 교류하면서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올 하반기 최대 사업으로 창원지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준비모임을 갖고 회원 모집, 정관 마련 등 오는 11월 9일에 창원 성주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회원배가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펼칠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싹들 자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보현행원의 원력을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강영철 사무국장

『이것을 알면 당신도 숯 박사!』

“숯 사람을 살린다” 저자의 완벽한 제2탄

숯을 알면 건강하게 산다

한국목탄연구소 강재운 지음

숯으로 독을 빼면 중병도 낫는다

썩인 병독, 썩인 약독, 썩인 음식독, 썩인 실내공기독을 숯이 해독하면 기적이 보인다!

- 체내에 썩은 독이 병을 만든다
- 지금 먹고 마시는 독이 위험하다
- 난병에 고생하는 분 숯요법에 주목하자
- 왜 숯이 독을 빼는지 알게 된다
- 신축아파트는 독가스실이다
- 숯음용사업이 보인다(사업, 부업, 겸업)

한국목탄연구소 | 410회 | 신국문 | 12,000원 | 전국유명서점 유통권 | 판매처 | 02)925-0300

육임강의·육임활용서 안내

활동서 (일부 다매달 수취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임래정비법 350,000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2,500,000 상 휴대용 (10일치씩 6권) 310,000 육임강의록 (상권 학습용·하권 활용서) 410,000 육임 비디오·CD 900,000 육임신수비결(비디오 1개 포함) 300,000 출생 일시 운명 예언 비법 (태아(胎兒) 길일 길시 선택 분만 선정·택일) 74,000
강의 (전지역 호사선생진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주 일요일 전주 저녁 6시 063-284-7714 매주 월요일 광주 오후 3시 062-224-8680 매주 화요일 진주 오후 6시 055-755-1644 매주 수요일 부산 오후 6시 051-762-0141 매주 목요일 대구 오후 6시 053-642-8680 매주 금요일 서울 오후 5시 02-993-8680 매주 토요일 강남 오후 6시 02-996-3335

문의 02-993-8680
 입금처: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間

● 치열한 이 시대의 예민한 물음들에 대해서는 육임에 나타난 대안이 가장 신임할 수 있습니다. - 효 사 -

명당을 만들어 주면 명이 바뀝니다 명당 육임방

가정집, 점포, 사무실에 두십시오. 불가키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화하면 불화와 우환과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이 옵니다.

이무리 환기구 노획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에 불을 넣어 주십시오. 불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이 옵니다.

신비의 황금보물 명당육임방 051)865-9933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임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화당에서 명당육임방을 구입하시면 불이 막힌 벽이 틀어지고 황금운으로 바뀝니다.